



한미사 공장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(맨 오른쪽이 전태일)

- 사진 전태일재단

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.  
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 
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.  
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 
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

- 전태일의 수기 중에서 -